

수입콩과 두부 이야기



김 승 호 의
시 선

농민들을 살리려다 중소기업들이 죽게 생겼다.

수입콩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국민 음식’ 두부 이야기다.

두부는 콩, 그중에서도 대두로 만든다.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토종콩으로 두부를 만들기도 한다. 대기업 등 일부에서 나오는 ‘국산 콩 두부’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두부는 수입콩으로 만든다. 가격 때문이다. kg당 국산콩은 5000원대, 수입콩은 1400원대다. 이 가격만 놓고보면 국산콩 두부가 수입콩 두부보다 서너배 비싸다.

브랜드 파워가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들은 국산콩 두부를 만든다해도 팔기가 쉽지 않다. 가격이 싸야 그나마 소비자들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콩에 100% 의존하는 이유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수입콩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국가가 수입콩을 통제하고 있

기 때문이다. 모자란 수입콩을 개별 기업들이 마음대로 수입할 수도 없다. 관세가 무려 487%에 이른다.

두부를 제조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수입콩을 통제하는)이런 나라는 없다”고 토로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국가 개입은 없다. 기업이나 관련 단체가 해외에서 계약재배를 통해 수입콩을 조달한다.

우리는 다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정부가 허용하고 있는 수입 식용 대두 물량은 22만3899톤(t)이다. WTO 물량을 통해 16만8332t, FTA 물량을 통해 5만5567t이 들어온다. 특히 전체 수입 허용 물량 가운데 66.7%인 14만9350t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국영무역이란 이름으로 수입한다.

2024년의 경우 식용대두 총 수입 허용 물량은 25만8213t이었다. 이 정도가 중소기업에 매년 필요한 최소한의 양이다. 2024년과 비교하면 올해는 3만t 가량이 부족하다.

“중소기업은 내일 (두부 제조에)필요한 물량을 오늘 주문하는 구조다. 수입 물량을 늘리지 않으면 중소기업 두부공장들은 10월부터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다.” 또다른 두부

공장 사장의 목소리다.

정부가 수입콩을 통제하고 물량을 조절하는 것은 국내 콩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수입콩을 늘리면 국산콩 자급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국산콩을 kg당 1600원에 공급해줄테니 수입콩과 섞어서 두부를 만들라고 중소기업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이 역시 현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한 제조사 대표는 “크기가 수입콩은 5mm, 국산콩은 8mm다. 크기가 달라 물에 불리는 시간도 차이가 난다. 두부를 만들땐 콩을 많이 불려도, 적게 불려도 안된다. 그런데 수입과 국산을 섞어 쓰란다. 두부 제조 과정에서 혼합은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두부 제조 중소기업들은 지난 9일 언론을 향해 이같은 애로를 가감없이 토로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여기에 반응해 수입콩 관련 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농민도 살리고 중소기업도 살릴 수 있는 해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bada@metroseoul.co.kr

‘동물농장’과 삼성 노노갈등



김 지 수 섭

구 남 영
(산업부)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은 모두를 위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며 일으킨 혁명이 내부의 권력과 이해관계 다툼으로 변질되는 과정을 그린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를 내세웠던 처음의 명분은 점차 흐려지고 내부 갈등이 그 자리를 채운다. 삼성전자 노조의 최근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 간 욕설과 폭로가 오가는 데 이어 엄벌처를 요구하는 탄원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실제 삼성전자 노조 간 갈등은 이미 선을 넘고 있다. 초기업노조와 동행노조 사이에서는 욕설과 위협성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됐고 법적 대응까지 거론됐다. 동행노조 측은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에 1만5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이에 초기업노조는 최 위원장 등

의 선처를 요구하며 DS(반도체)부문 임직원 3만명의 서명을 목표로 맞벌 탄원에 나섰다.

노조 간 갈등에 더해 초기업노조 내부에서도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부위원장과 광주지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하는 한편 조합원 가입 자격을 DS부문 근로자로 제한하는 규약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DX부문 조합원들은 노조에서 빠지게 된다.

이처럼 노노갈등이 격화하면 노조를 바라보는 시선도 더욱 싸늘해질 수 있다. 지난 4월 리얼미터가 실시한 ‘삼성전자 파업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9.3%가 노조의 파업을 ‘무리한 요구와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로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물론 성과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역할이다. 다만 높은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며 회사와 맞선 데 이어 노조끼리 서로를 겨누는 모습까지 반복된다면 사회적 공감을 얻기는 어려워진다.

노노갈등을 둘러싼 우려는 삼성전자 내부

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 위원장은 최근 “노동 인권은 노사 관계뿐 아니라 노노 관계에서도 반드시 준수돼야 할 중요한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삼성 준법감시 위원회도 노노갈등 문제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노조의 힘은 요구 수준이나 목소리의 크기뿐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무엇을 요구하느냐만큼 왜 그런 요구가 필요한지 설득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회사에는 더 많은 보상과 책임을 요구하면서 정작 내부에서는 욕설과 폭로, 탄원전으로 서로를 겨누는 노조가 내세우는 요구의 설득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동물농장’이 보여준 것도 처음의 목적을 잊고 내부의 권력과 이해관계에 매몰된 조직의 모습이었다. 삼성전자 노조도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다. 누가 더 많은 몫을 가져갈지, 누가 내부 싸움에서 이길지를 따지기 전에 지금의 싸움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말이다.

/koogija_tea@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7일 (음 8월 7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귀하를 돕는 큰 업체와의 계약이 성사됩니다. 60년생 과감한 변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72년생 결과에 연연하니 실력 발휘가 안됩니다. 84년생 분주하고 소득이 없습니다.



49년생 종교가 있다면 기도가 최선입니다. 61년생 노력하며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73년생 노력하지 않으면 하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85년생 매매는 미루고 소송은 당기세요.



50년생 이성을 잃지 말고 상황을 살펴보세요. 62년생 육신이 고달프니 이 내 몸이 외롭습니다. 74년생 노력하면 바라던 것을 얻을 것입니다. 86년생 자녀 문제로 고민하게 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51년생 냉철한 이성으로 오늘을 이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63년생 사업의 확장이나 투자는 금물입니다. 75년생 천생배필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87년생 돈이 막히는 날입니다.



52년생 미리 대비하여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64년생 심기가 편치 못합니다. 76년생 서쪽이 길방이나 움직임에 참고하세요. 88년생 지나친 신경은 건강을 해치니 여유를 가지세요.



53년생 소리대로 진행하세요. 65년생 심장과 소화기에 병이 들 수 있습니다. 77년생 일을 추진하기 앞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89년생 마음이 중심이 없고 흔들림이 많은 날입니다.



54년생 매매는 이루어지나 큰 이익은 없겠습니다. 66년생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78년생 주위의 유혹이 많은 날입니다. 90년생 젊은 날의 쾌락은 잠시뿐임을 잊지 마세요.



55년생 심고 가꾼 곡식이 알찬 열매를 보게 됩니다. 67년생 좋은 운이 돌아오니 순리대로 처신하세요. 79년생 남쪽에 귀인이 있습니다. 91년생 마음이 잘 맞는 주위 사람과 상의하세요.



56년생 작은 도움이 큰 결실을 보게 됩니다. 68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80년생 현실적인 소망을 먼저 이루도록 하세요. 92년생 몸의 작은 상처라도 정성껏 치료해야 합니다.



57년생 다 끝낸 일이 다시 불거집니다. 69년생 시작이 반이니 주저하지 말고 움직이세요. 81년생 친구들과의 약속은 다음으로 미루어 보도록 하세요. 93년생 모든 일에는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58년생 긴 안목을 가지도록 하세요. 70년생 외출은 삼가고 일찍 귀가하세요. 82년생 누명이나 사기를 조심하세요. 94년생 당신을 신뢰하는 이가 더 많으니 좌절하지 마세요.



59년생 금전운은 길하나 곧 나가게 됩니다. 71년생 가까운 친인척을 만나보세요. 83년생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95년생 근신자중의 날이니 말과 행동을 조심하세요.



김상회의四季

첨단기업의 불교 공부

세계 최고의 IT기업 구글 직원들은 회사에서 명상을 배운다. 종일 컴퓨터와 씨름하고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눈을 감고 명상을 한다. 구글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명상과 마음챙김을 직원 교육에 활용해왔다. 이 프로그램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불교와 만나게 된다. 종교 차원에서 불교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은 아니다. 불교에서 오랫동안 수행해온 명상과 마음챙김이라는 방법을 현대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한 것이다. 구글의 엔지니어들은 왜 불교의 명상에 관심을 가졌을까. 마음을 다루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엔지니어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수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동료들과 협업하며 갈등을 겪어야 한다. 일하는 과정에서 걱정하고 화내고 비교하고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한다. 동료의 한마디에 마음을 상하고 상사와 충돌하는 것도 여느 회사와 다르지 않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으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에 쫓긴다. 이런 때 필요한 것이 불교의 지혜라고 봤다.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인간의 마음을 관찰해왔다. 사람이 왜 괴로운지, 왜 화를 내는지, 왜 욕심을 부리는지,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 살펴봤다. 불교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명상 수행으로 한 발 떨어져 마음을 바라보면 자기 객관화가 되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불안한 마음이 편안해지고 분노가 줄어들며 걱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효과가 나타난다. 불교를 종교로만 본다면 절에 가서 잘하고 불경을 읽는 것이나 종교적 차원을 넘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오랜 지혜가 담겨 있다. 시대는 엄청나게 달라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화를 내고, 욕심을 부리고, 비교하고, 걱정한다. 불교의 지혜는 여전히 유용하고 귀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97호	
일간 메트로경제 <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01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